

하마노카와 용수

하마노카와 용수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시마바라 화산의 수혜를 받은 곳 중 하나입니다.

1792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후에 마유야마(819m)의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. 산 일부가 아리아케카일로 흘러들어 새로운 언덕이 여러 개 생겨났고, 무수한 용수가 생겼습니다. 화산으로 인한 균열을 통해 여과된 빗물은 새로 생긴 용수에서 맑고 맛있는 물로 솟아나게 되었습니다. 용수는 그 이후로 소중히 보존되며 지금도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.

하마노카와 용수는 4개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으며, 최대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구획에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마시고 싶은 경우는 공공컵을 사용하여 첫 번째 샘에 들어가기 전 수로에서 떠서 마실 수 있는데, 한 모금 마시고 몸을 리플레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면 풍부한 용수를 사용하여 만든 시마바라의 명산품 ‘간자라시’라는 경단을 드셔보세요.